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 I 의 지시어 「コ・ソ・ア」 문항 분석

—2010학년도~2020학년도 출제문제 중심으로—

류 신 애*
(e-mail : ryusssa47@gmail.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조사개요 |
| 2. 선행연구 | 4. 조사결과와 분석 |
| 2.1.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문법 연구 | 4.1. 현장지시 용법 |
| 2.2.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지시어 「コ・ソ・
ア」 습득에 관한 연구 | 4.2. 비현장지시 용법 |
| | 5. 나가기 |

키워드 : 日本語指示詞(Japanese demonstratives), 第二言語習得(Second Language Acquisition), 大学修学能力試験(Korea's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目標言語(Target Language), 中間言語(Interlanguage)

1. 들어가기

일본어 문법 중 지시어 「コ・ソ・ア」 문법은 일본어 초급 단계에서 언급되는 문법으로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법 중 하나이며 (1)의 예문은 일본어 입문과정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시어 문장이다.

(1) これは何ですか。

それはててるてるぼうずです。

윤강구 외(2014:68)¹⁾

* 동아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 전임연구원, 일본어교육

1) 윤강구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다락원, p.68.

<표1>은 한국의 고등학교 교재 『고등학교 일본어 I』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일본어 지시어 문법에 대해 용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일본어 「コ・ソ・ア」와 한국어 「이·그·저」를 대응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표1> 민광준 외(2014:66) 『고등학교 일본어 I』 2)의 지시어 설명3)

	こ(이)	そ(그)	あ(저)	ど(어느)
사물	これ(이것)	それ(그것)	あれ(저것)	どれ(어느것)
장소	ここ(여기)	そこ(거기)	あそこ(저기)	どこ(어디)
방향	こちら(이쪽)	そちら(그쪽)	あちら(저쪽)	どちら(어느쪽)
명사수식	この(이)	その(그)	あの(저)	どの(어느)

위의 <표1>은 일본어 지시어 문법 중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장지시(現場指示)에 한하는 설명이며 한국어 1:1 대응을 통한 습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초급 당시에는 모어(母語)와의 유사성으로 어려움 없이 일본어 지시어의 단편적인 이해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표로 설명이 되지 않는 용법의 경우, 오용이 발생하고 오용이 계속되다 보면 목표언어(目標言語) 습득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 일본어 I』를 통해 일본어 지시어를 습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출제된 지시어 「コ・ソ・ア」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 일본어 I』과 수능 문항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인학습자의 「コ・ソ・ア」 습득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문법 연구

일본어 지시어는 「コ・ソ・ア」 3계열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

2) 민광준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천재교육, p.66.

3) 전개서, 민광준 외(2014)의 『고등학교 일본어 I』 외, 타 교과서 4종의 지시어 설명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표1>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경수 외(2014:88)의 경우, *これ·それ* 등의 괄호 안의 한국어 해석이 없으며, 전개서 윤강구 외(2014:68)의 경우 「명사수식」과 더불어 *これ·それ* 등의 괄호 안의 한국어 해석이 없고, 한미경 외(2014:75)는 「장소」 부분이 빠져있다. 안병곤 외(2014:70)는 <표1>의 「명사수식」 부분이 「지시」로 되어 있다.

되어 왔다. 그 중 佐久間(1983)⁴⁾의 연구는 지시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佐久間(1983)는 지시어 「コ・ソ・ア・ド」를 인칭대명사와 관련지어 연구하였으며, 화자(話し手)와 그 상대(相手)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곳에 현실의 발화 공간(発話空間)에 「自称・対称・他称」이라는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의 영역(繩張り)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지시어를 규정했다.

<표2> 佐久間(1983:35)⁵⁾의 인간과 사물간의 대응관계

	指示されるもの	
	対話者の層	所属事物の層
話し手	(話し手自身) ワタクシ ワタシ	(話し手所属のもの)コ系
相手	(話しかけの目標) アナタ オマエ	(相手所属のもの)ソ系
はたのもの 人	(第三者) アノヒト	(はたのもの)ア系
不定	ドンナ ダレ	ド系

<표2>는 지시어 연구의 시발점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시어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위의 지시어는 지시하는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용이 가능하다. 즉 현대일본어지시어 용법인 현장지시(現場指示)용법에만 적용된다. 이렇듯 <표2>의 규정만으로는 일본어 지시어 용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지시(現場指示)를 포함한 일본어 지시어의 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堀口(1978)⁶⁾ 지시어 「コ・ソ・ア」 용법

	相手	指示対象
(イ)現場指示	いる	知覚可能なもの
(ロ)文脈指示	いる/いると仮定	先行文脈又は先行談話(「ソ」の場合) 観念対象(「コ」, 「ソ」の場合) 知覚可能なもの(「コ」の場合)
(ハ)知覚対象指示	いない	知覚可能なもの
(ニ)観念対象指示	いない	観念対象

4) 佐久間鼎(1983)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増補版>>』くろしお出版.

5) 前掲書、佐久間鼎(1983) p.35.

6) 正保勇(1981) 「『コソア』の体系」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8 日本語の指示詞』 国立国語研究所、p.66.에서 재인용

<표3>의 지시어 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현장지시(現場指示)와 현장지시 외(外)의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듯 일본어 지시어는 단순히 한국어 대조하여 쉽게 접근하기에는 장면에 따라 용법이 다양하고 까다로운 문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 표에 언급된 용법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보다는 상대방(相手)이 있는(또는 가정한) 장면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용어는 현장지시(現場指示)와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로 분류하여 언급하겠다.

다시 앞에 언급한 佐久間(1983)의 규정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가 각각의 다른 영역에 속해 있을 경우 즉, 대립형(対立型)의 장면에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립형(対立型)과 별개로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가 같은 공간,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를 융합형(融合型)이라고 칭하며 관련 선행연구로는 阪田(1992)⁷⁾를 들 수 있다.

阪田(1992)은 화자(話し手)의 입장 중심으로 「コ・ソ・ア」를 규정했다. 화자(話し手)의 영역 내(内)의 것과 영역 밖(外)에 있는 것을 나누어 화자(話し手)는 공간적(空間的)·심리적(心理的)으로 몸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의 영역 내(内)의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コ」를 사용하고, 영역 밖(外)의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ソ」를 사용하지만,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가 공동체 즉 ‘우리’라는 하나의 영역에 속해 있을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가 같은 영역에 속해 있을 경우는 그 영역 내(内)의 것은 「コ」를 사용하여 지시하며, 둘의 영역 밖(外)의 것은 「ソ」 또는 「ア」를 사용하여 지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阪田(1992)는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의 공동체 영역외의 것 중 화자(話し手)-청자(聞き手)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지시할 경우 「ア」를 사용하며, 「ア」를 사용해서 지시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ソ」를 사용한다고 정리했다.

이와 같이 현장지시의 경우 佐久間(1983)와 阪田(1992)의 검토를 통해 대립형(対立型)과 융합형(融合型)의 규정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은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의 용법은 久野(1973)⁸⁾의 정의를 직접 인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7) 阪田雪子(1992) 「指示詞『コ・ソ・ア』の機能について」 金水敏・田窪行則(編) 『指示詞』 ひつじ書房、pp.54-68.

8) 久野暲(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pp.185-190.

ア一系：その代名詞の**実世界**における指示対象を、話し手、聞き手ともによく知っている場合のみ用いられる。

ソ一系：話し手自身は指示対象をよく知っているが、聞き手が指示対象をよく知っていないだろうと想定した場合、あるいは、話し手が指示対象をよく知らない場合に用いられる。

久野(1973:185)⁹⁾

정리하면,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용법은 「ソ」와 「ア」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자(話し手)는 청자(聞き手)가 대화 주제(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해 그 상황에 맞는 지시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久野(1973)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용법은 한국어모어화자인 일본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2.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습득에 관한 연구

일본어지시어 「コ・ソ・ア」 습득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모어(母語)와 관련지어 조사하는 연구와 학습자의 목표언어(目標言語) 습득과정에서 형성되는 중간언어(中間言語)에 관점을 두는 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安(1996)¹⁰⁾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상이점과 유사점이 명확하게 되어 제2언어습득에 학습자의 모어간섭(母語干渉)이 발생하는 부분이 발견되어 그것에 의한 예측되는 오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한일 양언어의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어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점에 의존하는 초급단계를 거쳐 레벨이 올라가면서 양언어의 상이점을 파악하고 지시어 선택기준이 흔들리게 되어 오용선택이 증가한다고 서술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安(2005)¹¹⁾에서는 모어(母語)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모어화자 학습자와 중국어모어화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용

9) 前掲書、久野暉(1973) p.185.

10) 安竜洙(1996) 「韓国人学習者の指示詞「コ・ソ・ア」の習得における母語の影響について-非現場指示の場合」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6、東北大学文学部、pp.1-12.

11) 安竜洙(2005) 「日本語学習者の非現場指示コソアの習得に関する研究-韓国人学習者と中国人学習者を比較して-」 『茨城大学留学センター紀要』第3号、茨城大学留学センター、pp.35-51.

법의 습득을 모어(母語)의 영향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두 그룹 학습자 다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 「ソ」 계열과 「ア」 계열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어모어화자 학습자와 중국어모어화자 학습자 간의 현저한 차이가 보이는 부분으로,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ソ-ア」의 오용이 같은 오용 즉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Kawakami(2010)¹²⁾에서는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어학습자와 일본어모어화자 한국어학습자의 각 그룹의 목표언어(目標言語) 지시어 용법을 학습자의 모어(母語) 영향의 관점에서 조사해 비교했다. 한국어모어화자인 일본어 학습자는 양언어의 지시어 용법 간에 상이점이 있는 용법에 대해서는 모어(母語)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일본어지시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정리했다. 일본어모어화자 한국어학습자 또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Kawakami(2010)은 목표언어(目標言語)와 모어(母語)의 비교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迫田(1993)¹³⁾은 초급단계에서 배우는 「コ・ソ・ア」가 상급레벨 학습자에게도 틀리게 사용되는 점에 의문을 품고 학습자의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1) 지시어의 사용법은 잘 습득이 되어있는가, 2)어느 지시어를 가장 어려워하는가, 3)그 어려움은 학습자의 모어(母語)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 3가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일본어와 같이 3계열을 지시어를 가진 모어(母語)를 구사하는 학습자와 일본어와 다른 2계열의 지시어를 가진 모어(母語)를 구사하는 학습자였고, 조사결과 모어(母語)의 차이와 상관없이 두 그룹에서 동일하게 「ソ」 계열과 「ア」 계열의 오용이 나타났다고 서술해 학습자의 ‘중간언어 형성’의 이론에 힘을 실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迫田(1996)¹⁴⁾은 중간언어 관점에서 지시어습득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한국어모어화자학습자 3명과 중국어모어화자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연구(縱斷研究)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어(母語)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ソ」 계열을 사용해야하는 부분에서 「ア」 계열을 사용하는 「ソ→ア」의 오용이 보여 지고

12) Kawakami Erico(2010) 「韓·日兩者學習者の 指示詞 습득에 관한 考察 - 설문 조사를 통해서 -」 明知大学校大学院 日語日文学科、碩士學位論文.

13) 迫田久美子(1993) 「日本語學習者と日本語幼童による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 穴埋めテストの調査結果に基づいて」 『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 第二部 第49号、広島大学教育学部、pp.199-206.

14) 迫田久美子(1996) 「指示詞コ・ソ・アに関する中間言語の形成過程-對話調査による縱斷的研究に基づいて-」 『日本語教育』 第85号、日本語教育学会、pp.64-75.

학습이 진행되어도 해당 오용 패턴은 적지 않게 나타나며 「소」 계열과 「아」 계열의 지시어 선택 규칙이 일본어모어화자와는 다르며 접촉되는 명사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밝혀져 이것을 일본어 「코·소·아」의 중간언어가 형성된 ‘학습자만의 독자적인 문법’이라고 칭했다.

이와 같이 문법과 습득연구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일본어 지시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1:1 대응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간단한 문법이 아니며, 이를 토대로 필자의 출문, 柳信愛(2014)¹⁵⁾에서는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장지시(現場指示) 습득에 대해 조사를 진행, 그 결과 초급에 배운 지시어 용법이 중·상급의 일본어 지시어 습득에 영향을 주어 지시어용법 간의 혼동이 생기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표4> 柳信愛(2014:87)¹⁶⁾의 현장지시(現場指示) 융합형(融合型) 용법 조사결과

(お店に店員、客の両者すぐ近くにある物を指しながら) 客： { これ / それ / あれ }ください。 店員： { これ / それ / あれ }ですね。												
	正用	誤用		コ・コ	コ・ソ	コ・ア	ソ・コ	ソ・ソ	ソ・ア	ア・コ	ア・ソ	ア・ア
初級	23%	77%	初級	17	18	6	15	3	3	6	2	4
中級	64%	36%	中級	42	5	1	7	1	1	3	4	2
上級	58%	42%	上級	56	11	7	13	1	1	7	0	1

위의 <표4>의 결과를 통해 융합형(融合型)의 지시어문항에 대해 대립형(対立型)으로 답하는 오용이 적지 않게 전체 레벨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의 경우 <표1>에 대입시켜 본다면 한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의 유사성에 의해 오용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 결과와 같이 모어(母語)와 목표언어(目標言語)의 유사점이 아닌, 일본어 지시어 용법 간의 혼동으로 틀린 지시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위와 같은 오용의 발생 요인으로는 『고등학교 일본어 I』에 탑재되어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 このきいろいはどう？

かわいいですね。それにする。

한미경 외(2014:73)¹⁷⁾

15) 柳信愛(2014) 「韓国語母語話者の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現場指示の習得状況の調査結果を中心に-」 『韓日語文論集』第18輯、韓日語日文学会、pp.79-93.

16) 前掲書、柳信愛(2014) p.87.

(3) それ、何ですか。かわいいですね。

これはエミリーからのプレゼントです。

이경수 외(2014:82)18)

Kawakami(2010)19)는 이런 예문을 통해 초급 때 ‘「コ」로 물으면 「ソ」로 답한다’와 같은 규칙이 학습자에게 인풋 되어, 그로 인해 <표4>와 같은 오용이 산출된다고 언급했다.

3.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수능에 출제된 일본어 지시어 문항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일본어 I』과 수능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어학습자의 지시어 「コ・ソ・ア」 습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는 2010학년도부터 2020학년도의 수능출제문제 중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문항을 대상으로 출제문제를 분석한다. 먼저 수능 제2외국어의 출제범위 다음 <그림1>과 같다.

시행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적용 기준

-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함
- ◎ 적용 기준

시행 연도 영역	2020학년도 수능 (2019년 시행/2017년 입학생)	2021학년도 수능 (2020년 시행/2018년 입학생)	2022학년도 수능 (2021년 시행/2019년 입학생)
제2 외국어/ 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교과서: 2017, 2018, 2019년판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 교과서: 2018, 2019, 2020년판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과서: 2019, 2020, 2021년판

<그림1> 수능 제2외국어/한문 교육과정 및 출제범위(2020학년도~2022학년도)20)

제2외국어는 총 9개로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본어

17) 한미경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교학사, p.73.

18) 이경수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시사일본어사, p.82.

19) 前掲書、Kawakami Erico(2010) pp.28-29.

20) <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29&boardSeq=5048614&lev=0&m=0301&searchType=null&statusYN=W&page=1&s=suneung> (검색일: 2020.03.30.)

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많은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매년 수능 일본어 I 의 응시자수는 2017학년도 5,987명, 2018학년도 5,874명, 2019학년도 6,188명, 2020학년도 5,567명으로 2019년도 잠깐 상승했으나 2020학년 대폭 하락해 최근 4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²¹⁾

4. 조사결과와 분석

2010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출제된 수능 일본어 I 의 총 문제 수는 330 문제이다. 본 연구 조사 대상인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문항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해 분석하겠다.

- 1) 「コ・ソ・ア」를 사용한 회화 문항 포함
- 2) 「コ・ソ・ア」를 사용한 독해 문항은 제외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한 근거로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의 용법은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이다. 즉, 대화의 장면이 있는 회화 문항을 중심으로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수능 일본어 I 의 출제되는 지시어 문법이 앞서 언급한 <표1>의 설명으로 충분한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0학년도에서 2020학년도의 수능 일본어 I 에서의 일본어 지시어 「コ・ソ・ア」 회화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총 70개의 문항이 나왔으며,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까지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표5> 수능 일본어 I 의 지시어 「コ・ソ・ア」 회화 문항 수(2010학년도~2020학년도)

학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항수	5개	6개	8개	3개	4개	8개	8개	7개	7개	7개	7개

70개의 문항을 일본어 지시어 용법에 맞게 현장지시(現場指示)와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吳琰定(2017) 「수능 일본어 I 의 문법 항목 및 난이도 분석」 『日本語教育研究』 第41輯, 韓国日語教育学会, p.99.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참고.

<표6> 수능 일본어 I 의 지시어 「コ・ソ・ア」 문항의 용법에 따른 분류

용 법	현장지시	비현장지시	둘다가능	합 계	
문항 수	44개	25개	1개	70개	

전체 문항 70개 중 62.9%가 현장지시(現場指示) 문항으로 제일 많았고, 비현장지시 문항은 35.7%로 총 25개의 문항이 있었다. 70개 중 1개는 현장지시(現場指示)와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 둘 다 가능한 문항이 1개 있었다. 그 문항은 2010학년도 수능 일본어 I 에 출제된 21번 문제이다.

2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先生: パクさん、あの 本、もう 読んだ?
 パク: すみません。まだ _____。
 あの 本は むずかしい 漢字が 多いので……。

<보 기>

a. 読んでいません b. 読んでおきます c. 読んでしまいます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그림2> 2010학년도, 21번 문항

<그림2> 문항의 경우 先生과 박 둘이서 「あの」를 써서 「本」을 지시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 대화만으로는 이 둘의 눈에는 보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을 지시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박가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 책이 유명해서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 용법인 「あの」를 사용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표6>를 토대로 각 문항들을 현장지시(現場指示)용법과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용법을 나누어 살펴 보고자한다.

4.1. 현장지시 용법

현장지시(現場指示)용법 문항을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가 대립하고 있는 대립형(対立型)과 공동체로 하나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융합형(融合型)으로 나누면 <표7>과 같다.

<표7> 현장지시: 대립형-융합형 용법 분류

용 법	대립형	융합형	합 계
문항 수	17개	27개	44개

대립형(対立型) 현장지시 용법은 전체 44의 38.6%로 총 17개 문항이 나왔다. 융합형(融合型) 현장지시 용법은 27개로 현장지시 용법의 61.4%이다.

17.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たんじょうび、おめでとう。はい、これ。
 B: ありがとう。(あけて みてから)
 わあ! 前から (a) シャツが (b) んだ。

- (a) (b) (a) (b)
 ① こんな - ほしい ② こんな - ほしかった
 ③ そんな - ほしい ④ そんな - ほしかった
 ⑤ あんな - ほしい

<그림3> 2010학년도, 17번 문항

27.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あれ、見て。
 あの山、人の顔 _____ じゃない?
 B: そうね、よく見ると、女の人の顔に見えるね。

- ① そう ② よう ③ みたい
 ④ らしい ⑤ かも しれない

<그림4> 2020학년도, 27번 문항

<그림3>의 2010학년도 17번 문항은 융합형(融合型) 현장지시(現場指示)용법 문항이다. A가 「これ」로 지시한 대상에 대해 B는 「こんな」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그 영역 범위 내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コ」를 사용한 것이다.²²⁾ <그림4>의 문항은 A와 B의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가리키며 「ア」로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문항은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한국어와 일본어 1:1 대조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위 문장들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지시어 형태를 습득한 초급 학습자에게는 굳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わるい ② ようこそ
 ③ よく ない ④ よく できた
 ⑤ とんでもない

<그림5> 2015학년도, 19번 문항

2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手伝って。 ② 手伝おうか。
 ③ ならべられる? ④ たすけて みたら?
 ⑤ たすけて もらえる?

<그림6> 2018학년도, 24번 문항

22) 前掲書、阪田雪子(1992) pp.54-68.

2015학년도 19번 문항의 경우 상대가 들고 있는 가방을 「それ」를 사용해서 지시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 24번 문항 또한 상대방이 옮기고 있는 책상을 「それ」로 지칭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대조해서 습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예시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강조하는 예시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예시는 ‘「コ」로 물으면 「ソ」로 답한다’라는 공식²³⁾이 있을 정도로 학습자들에게는 강한 인상이 남겨져 있는 용법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7>의 문항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일본어 지시어 문법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このまんが _____ おもしろくないね。
B: そうでしょう? それより こっちの方がいいよ。

- ① かならず ② ぜんぜん ③ そろそろ
④ ちょうど ⑤ はっきり

<그림7> 2019학년도, 4번 문항

2019학년도 4번 문항의 A와 B의 대화에서도 A가 「この」로 지시한 대상은 B는 「それ」를 사용하여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 한국어와 일본어 대조를 통해 지시어 형태를 익힌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柳信愛(2014)의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 중 하나로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이 차후 중·상급 레벨 습득에 영향을 주어 정용(正用) 습득이 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 습득·산출됨에 오용(誤用)이 발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이를 필자는 『指示用法間のゆれ』²⁴⁾라고 칭했다.

4.2. 비현장지시 용법

본 조사에서는 현장지시(現場指示)외의 용법을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용법으로 칭하고 분류했다. 현장지시(現場指示)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용법으로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 용법은 그 반대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지시하는 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을

23) 前掲書、Kawakami Erico(2010) pp.28-29.

24) 前掲書、柳信愛(2014) p.91.

지시어 「コ・ソ・ア」를 이용해 가리키는 것이다.

10.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李 : 日本に行って友だちには会いましたか。
 田中: それが、仕事がいそがしくて会えなかったんです。
 李 : それは _____.

- ① けっこうですが ② ざんねんですね
- ③ よかったですね ④ おそれいりますが
- ⑤ ひさしぶりですね

<그림8> 2011학년도, 10번 문항

1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先日、別府の温泉に行ってきました。
 B: そうですね。 _____。
 A: 海のすぐ近くでした。お風呂からの景色がきれいでしたよ。
 B: それはよかったですね。

- ① 別府のどのへんですか
- ② 別府のどこに行きますか
- ③ 別府は初めてだったんですか
- ④ 別府にどれくらいいましたか
- ⑤ 別府にどうやって行きましたか

<그림9> 2018학년도, 14번 문항

<그림8>과<그림9>의 경우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을 「それ」를 사용해 지시하고 있다. 「それ」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장은 굳이 지시어 용법을 알지 못해도 문장을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음 출제 문항들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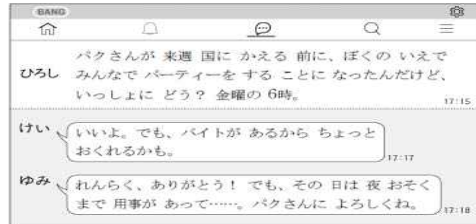
18.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_____의 どのようび、野球を見に行かない?
 B: どのようび? その日はちょっと……。
 A: あ、そう。じゃ、また _____にしよう。

- ① 今日 ② 今月 ③ 今年 ④ 今度 ⑤ 今週

<그림10> 2010학년도, 18번 문항

14. 대화 창 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バクさんは 国に 帰る 予定だ。
- ② けいは パーティーに 行く つもりだ。
- ③ パーティーを する ところは きまっている。
- ④ けいと ゆみは ひろしに パーティーに さそわれた。
- ⑤ ゆみは バイトの あと パーティーに 行く ことに した。

<그림11> 2016학년도, 14번 문항

<그림10>의 2010학년도 18문항과 <그림11>의 2016학년도 14번 문항 또한 상대가 언급한 내용을 「その」를 사용해서 지칭하고 있다. 이 문항 속 지시어는 현장지시(現場指示) 「コ・ソ・ア」와는 엄연히 다른 용법이지만,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는 굳이 세세한 부분까지 인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답을 찾는 부분에는 지시어 용법 분류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로 바로 대입하여 읽어도 전혀 문맥에 어색함이 없다. 그렇지만 향후 대학에서 진학하여 일본어를 전공으로 배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초급단계에서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이 올라가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2>의 2010학년도 21번 문항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先生：バクさん、あの 本、もう 読んだ？ バク：すみません。まだ _____。 あの 本は むずかしい 漢字が 多いので……。
<보 기>
a. 読んでいません b. 読んで おきます c. 読んで しまいます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그림2> 2010학년도, 21번 문항

2010학년도 21번 문항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 내용만으로는 용법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지만, 이 절에서는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 용법으로 분류하여 따져본다면 학습자 중 이 문항의 「あの」를 ‘그’로 해석하는 학습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사실은 ‘저’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며 이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 학습기간을 길게 본다면, 이런 목표언어(目標言語)에 모어(母語)를 그대로 대입해서 습득하는 것은 학습에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것이다.

5. 나가기

본 연구에서는 수능에 출제되는 지시어 「コ・ソ・ア」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 학교 일본어 I』를 통해 일본어 지시어를 습득한 한국어모어화자 학습자들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출제문제를 토대로 분석 하였다.

지시어는 화자(話し手)와 청자(聞き手)의 관계가 중요한 문법으로 대화중심의 회화문항 중 지시어 「コ・ソ・ア」를 사용한 문항을 추출하여 용법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고등학교 일본어 I』 상의 일본어 지시어 설명은 학습자의 모어(母語)인 한국어와 목표언어(目標言語)인 일본어를 대조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었으며, 그 외 일본어 지시어만의 특성 특히, 현장지시(現場指示) 용법 중 대립형(對立型)의 경우, 예시를 통해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지시어 문항은 양 언어의 유사성이 아닌 일본어 지시어 용법적인 문항이 문제로 출제된 경향이 많았다. 즉 교과서 상의 설명과 실제로 출제되는 문항과의 거리가 다소 있어 보였다. 또한 지시어 자체를 묻는 문제들은 현장지시(現場指示)용법의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용법은 학습자가 출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해당 지시어 용법에 대해 알지 못해도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에는 전혀 걸림돌이 없어 학습자는 해당 지시어 용법에 대해 단순히 이해했다고 생각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부분이 쌓여 향후 중·상급 레벨의 일본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어 지시어 습득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相手)이 존재하는 회화문항 「コ・ソ・ア」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현장지시(現場指示)에 항목들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는 선행연구에서도 습득이 어려운 용법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듯이 차후 과제로는 비현장지시(非現場指示)에 대한 분석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수능 출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재 속 지시어 문법 내용 및 예문, 연습문제도 『고등학교 일본어 I』 과 대조하여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제2외국어를 친 수험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시어 습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교과서와 문항 간의 간극이 지시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학습자의 습득과정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후 과제로 삼아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 초급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음 습득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큰 어려움 없이 목표언어(目標言語)를 습득하여 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의 큰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민광준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천재교육, p.66.
- 안병곤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에듀서울, p.70.
- 吳玟定(2017) 「수능 일본어 I의 문법 항목 및 난이도 분석」 『日本語教育研究』 第41輯, 韓國日語教育学会, pp.99-117. (DOI: <http://dx.doi.org/10.21808/KJJE.41.06>)
- 윤강구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다락원, p.68.
- 이경수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시사일본어사, p.82, 88.
- 한미경 외(2014) 『고등학교 일본어 I』 교학사, p.73, 75.
- 安竜洙(1996) 「韓國人學習者の指示詞「コ・ソ・ア」の習得における母語の影響について-非現場指示の場合」 『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 6、東北大学文学部、pp.1-12.
- _____ (2005) 「日本語學習者の非現場指示コソアの習得に関する研究-韓國人學習者と中國人學習者を比較して-」 『茨城大学留學センター紀要』 第3号、茨城大学留學センター、pp.35-51.
- Kawakami Erico(2010) 「韓・日兩者學習者の指示詞 습득에 관한 考察- 설문 조사를 통해서-」 明知大学校大学院日語日文学科、碩士學位論文.
- 久野暉(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pp.185-190.
- 阪田雪子(1992) 「指示詞『コ・ソ・ア』の機能について」 金水敏・田窪行則(編) 『指示詞』 ひつじ書房、pp.54-68.
- 佐久間鼎(1983)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増補版>>』 くろしお出版.
- 迫田久美子(1993) 「日本語學習者と日本語幼童による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 穴埋めテストの調査結果に基づいて」 『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 第二部第49号、広島大学教育学部、pp.199-206.
- _____ (1996) 「指示詞コ・ソ・アに関する中間言語の形成過程-対話調査による縦断的研究に基づいて-」 『日本語教育』 第85号、日本語教育学会、pp.64-75.
- 正保勇(1981) 「『コソア』の体系」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8 日本語の指示詞』 国立国語研究所、p.66.
- 柳信愛(2014) 「韓國語母語話者の日本語學習者の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現場指示の習得状況の調査結果を中心に-」 『韓日語文論集』 第18輯、韓日日語日文学会、pp.79-9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29&boardSeq=5048614&lev=0&m=0301&searchType=null&statusYN=W&page=1&s=suneung> 검색일: 2020.03.3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 자료(<http://www.kice.re.kr/boardCnts/list.do?boardID=1500234&m=0403&s=suneung> 검색일: 2019.12.2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2016.12.07.),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 _____ (2017.12.1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 _____ (2018.12.04.),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 _____ (2019.12.0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논문 투고 일자 : 2020.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 要 旨 >

大学修学能力試験の日本語 I における指示詞「コ・ソ・ア」項目分析
 -2010学年度~2020学年度の出題問題を中心に-

柳信愛

日本語文法の中で指示詞は、初級で扱われる文法の一つで韓国語母語話者の日本語学習者には易しい文法である。本稿は『高等学校日本語 I』を用いて、指示詞を習得した学習者が受ける韓国の大学修学能力試験における「日本語 I」出現する日本語指示詞「コ・ソ・ア」項目を対象にして、調査・分析した。

『高等学校日本語 I』における日本語指示詞は、母語である韓国語と日本語を1対1の対応させて、「コ・ソ・ア」を説明していた。その説明が「大学修学能力試験の日本語 I」の問題解決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を観察した。試験での項目に関しては、指示詞を用いた対話場面の項目を調査対象として分析した結果、現場指示の用法が非現場指示より1.75倍多かった。現場指示の場合は、「コ・ソ・ア」の使い分けが「対立型」と「融合型」に分けて用いられていた。また、非現場指示の場合、具体的にその指示用法についてわからなくても、解答探しには困難はなさそうである。なお、試験ではよい点数が得られたとしても、その項目にある指示詞用法については習得が進んでいないと考えられる。

An Analysis of the Demonstratives ‘코(ko), 소(so), 아(a)’ in Japanese I of Korea’s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With a focus on questions for 2010-2020

Ryu, Shin-Ae

In Japanese grammar, Japanese demonstratives are an aspect of grammar addressed at the beginner level and one that is easy for Korean learners of Japane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Japanese demonstratives, ‘코(ko), 소(so), 아(a)’ which are items that appear in Japanese I of Korea’s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taken by learners who have acquired the demonstratives in High School Japanese.

Japanese demonstratives are described as ‘코(ko), 소(so), 아(a)’ and explained in High School Japanese I by comparing the nativ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on a one-to-one basi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n problem solving in Japanese I of Korea’s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As result of analyzing the test items involving dialogue sentence scenes using Japanese demonstratives and found that the usage of spatial-temporal deixis was more than discourse-reference deixis. In the case of spatial-temporal deixis, it is divided into usages for ‘when the speaker and listener are in different places’ and ‘when the speaker and listener are in the same place’. In the case of contextual directives, there seemed to be no difficulty finding the answer, even if the instruction usage was not specifically understood. Although a good score may be obtained on the test, mastery of demonstrative usage in the items was not considered to be advanced.